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제1회

페미니즘 문화제

자료집

1996. 3. 25~30

주최/ 해방이화 제28대 총학생회 여성위원회

섬세함과 정확함- 웨스틴조선호텔 서비스의 정신입니다

시계의 생명이 그 정확성에 있듯이,
호텔의 생명 또한 정확하고 믿을만한 서비스에 있습니다.
웨스틴조선은 호텔업계에선 세계최초로
ISO 9002를 획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호텔임을 인정받고
초일류호텔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품질경영관리(TQM)를 통해
호텔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킨 성과로
최우수기업에만 돌아가는 품질경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안았습니다.
귀하의 고객께 최고의 편안함을-
웨스틴 조선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ISO 9002는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규격 인정서로
웨스틴조선호텔은 1994년 7월 29일 NACCB가 인정한 세계적 품질인증기관인
로이드(Lloyd)로부터 식음료 서비스부문의 인증을 수여받았습니다.



THE WESTIN CHOSUN
Seoul
Tel: 771-0500



'얼어 붙은 입'은
끝내
스스로를 속박한다.
여성이어 성역을 깨라

제1회

페미니즘 문화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 4 권두언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제안하며
- 5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하기까지
- 6 페미니즘문화제를 준비하며
'함께하는 기쁨'
'나의 작지만 큰 소망'
- 8 새내기 자봉단을 시작하며
'나는'
'이화에 들어서며'
- 10 페미니즘 문화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 12 만평 YS 여성정책의 허구성
- 13 연구팀논문
담론공장
Never ending story
이대와 이대생
순결한 이화



퍼낸이/ 해방이화 제28대 총학생회
역은이/ 여성위원회
찍은곳/ 청년기획(269-2008)
발행인/ 윤민화
발행일/ 1996.3.26

- 공트 26
남자가 멘스를 한다면
- 만평 PC통신의 성희롱? 35
- 공트 42
송이양의 미팅
- 여성위원회 44
- 여성단체 소개 46
- 별첨자료1 55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재 쟁점」
- 별첨자료2 56
정대협 7대 요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현실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제안하며

이 사회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같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같은 교과과정을 배우고 같은 사회 안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체험의 느낌이 다른 영역은 존재한다.
그리고 여성 고유의 체험은 '공식화'되지 않는다.
아니, 심지어 여성 자신은 느낌으로 느끼되
말로 이야기할 언어는,
인식의 구조는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많은 삶의 부분들,
'진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는 사실 '진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모르는 건 아닐까?

자, 이제 다시 세상을 읽어가는 법을
여성의 시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나는 알진 다 알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소위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나 자신을 굳이 '여자'라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모두 다.

우리, 다시 의심과 혼란으로부터 시작하자.
원래 페미니즘이란 시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거니까
의심과 혼란은 당연하다.

나 역시 같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제1회 페미니즘 문화제를 시작한다.

해방이화 제28대 총학생회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하기까지

페미니즘문화제를 준비하며
새내기자봉단을 시작하며
전체일정

함께 하는 기쁨

가정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94 전효원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하여

2월달에 학교 곳곳에 '페미니즘 문화제를 함께 할 연구팀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포스터들이 붙어있었다. 1년 반동안 우리 과의 여성학 소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내게 그 포스터들은 상당한 관심을 일으켰다. 그리고 소위 '여성학의 메카'라고 남들이 말하는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하기 이전에 그런 행사를 한 번 참가해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당장 우리과에 있는 여성학 소모임의 간사를 맡아야 하는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땀땀하고 또 뭔가 내세울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난 선뜻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연구팀의 첫 모임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해련언니를 만나서 언니에게 연구팀이 하는 일과 대략적인 행사의 개요만을 들었을 때는 '그래, 이정도의 일이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비 모임을 가지고 몇번의 모임을 거치면서, 그리고 성차별 성담론이라는 너무나도 포괄적인 주제를 가진 팀의 팀장을 맡아서 팀원들과 세미나를 해 나가는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우선은 팀이름을 정하는 것부터 팀의 기조를 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과정인 자료글을 써내는 것까지 모든 일들이 내겐 무척이나 벅차게만 느껴졌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힘들어할때마다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선배언니들과 친구들이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해서 이전에는 알 방법이 없던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또 멀게만 느껴지던 총학생회에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 연구를 준비하면서 읽은 많은 자료들이 내게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런 자료들로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이 내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단히 만족한다. 아쉬운 것은 좀 더 이 일에 몰두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연구를 하면서 보낸 한 달이 무척이나 뿌듯하게 느껴진다.



나의 작지만 큰 소망

법과대학 법학과 95 남상미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하여

겨울 방학이 끝나갈 무렵 여성학회 은경언니로부터 세미나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 방학동안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해 96새내기들을 어떻게 맞이하나 걱정하던 나는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했다. 세미나는 여성학회 전원 출석(모두 6명)으로 시작되었고, 은경언니가 마무리를 하시면서 총학에서 이번에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하는데 너희들도 해보지 않겠냐며 권유(?)반, 강요(?)반 우리들에게 물으셨다. 여성학회의 대모이신 은경언니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감히 거역 할 수 있으랴?

우리는 그날 언니를 따라 처음으로 총학생회실이라는 곳을 들어갔다. 그곳에서 여성위원장이신 해련언니를 만나뵈고 문화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 수 있었다. 해련언니의 설명을 들은 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학교행사에 내가 주체가 되어 활동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뚱했다.

2차리에 걸친 세미나, 장장 5시간동안 진행된 서동진씨의 열띤 강연, 각 주제별 연구팀 모임등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고,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가면 바로 쓰러져 자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문화제에 소비한 시간들이 아깝지는 않다. 왜냐하면 내가 소비한 시간보다 더 소중한 친구들, 언니들과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성취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화 광장에 페미니즘 문화제에 대한 대자보를 보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기뻐다.

이 문화제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페미니즘이란 과연 어떤 것이가?에 대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서투른 답변이다. 나를 포함하여 모두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다. 그렇기에 나는 이 문화제가 단순한 연례행사중의 하나로 기억되기 보다는 이화인들, 더 나아가 이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진다.



나는...

인문학부 인문계열 96학번 고미설

평소에 여성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평범한 수준을 넘지 못하지만 이 기회에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은 널리 알려진 문제이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의식을 자식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눈에 띄게 남녀 차별을 하는 집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아들이었다면 제 동생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동생을 배었을 때 어머니께서 아들이기를 바라며 성당까지 다니시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여성들은 누구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아들 낳기를 강요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이 대를 잇고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한 것처럼,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친권을 가지고 호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아이가 어머니의 성을 이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지만, 마치 핏줄은 남자에서 남자로만 이어지는 듯한 이런 제도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어머니께서 "대란 연젠간 끝기기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구

문제로 인해 아이가 하나뿐인 가정이 늘고 있고, 독신자의 비율도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뿐 아니라 중고교, 국민학교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중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에 대해 관심있게 읽었는데, 대중매체가 인간에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세대일수록 대중 매체가 보여주는 여성상과 남성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보다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흔한 예지만,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아내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고, 남편은 당연한 듯 반말을 쓴다든지, 남학생이 대답을 못한 질문에 여학생이 대답했을 경우 그 남학생을 무시하는 어투로 "저건 여자보다 못해..."라는 식으로 말한다든지, 등등의 일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좀 더 의식을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프로그램 내에서 시청자들이 이런 문제를 비판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에 들어서며

인문학부 인문계열 96학번 김래은

이화에 첫 발을 내디딘지 이제 일주일... 내게 있어 이화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넓은 학교 구석구석까지 모든 학생이 여자. 타학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여교수님들. 나는 여성이 주인되는 세계의 일원이 된 것이다. 아직도 바깥 세상은 우리를 한 인간으로 보기에 앞서 성으로 판단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여자'라는 울가미로 묶어 놓으려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여성스러움'에 길들여졌던 자신의 허물을 벗고 이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을 일구어 가야 한다. 페미니즘이 여성상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리라. 이 사회에서 추락한 여성의 가치를 제자리에 돌리고 남성의 부속물이 아닌 당당한 주체로서 남성과의 조화속에 세계운전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페미니즘의 실현일 것이다. 이를 위한 이화인의 큰 몸짓인 '페미니즘 문화제'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화 새내기들에게

- 귀중한 대학 4년, 그 중에서도 황금 같은 1학년. 열심히 부딪치고 열심히 깨져보세요. 1학년이라면 겁낼 것이 없어요.
-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하루하루를 하나의 큰 인생의 줄기로 엮지 못한다면 다만 허탈해질 뿐이다.
- "과거가 불우했다고 지금 과거를 원망한다면 그 불우했던 과거는 영원히 너의 영역의 사생아가 되는 것이 아니냐" - 전태일 평전 중
- 이화에 온 여러분들의 특권은 바로 화려한 교문밖에 즐지어선 미용실, 옷가게, 술집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아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여성'입니다.
- 나는 너무도 새내기가 부러워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정열로 흥분되어 있을 이때! 개방된 사고로 어떤 것이든지 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하세요.

페미니즘 문화제 어디에서 무엇하나?

영 화

변영주감독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 영화제

올란도(월), The Women Outside(화), 낮은 목소리(수)
곳 : 가정관 318호
때 : 3월 25-27일 / 5:30-8:00

페미니즘의 영화, 영화의 페미니즘 : 씨네마테크 영화제

바그다드카페, 립스틱, 어둠선, 그녀 이름은 베트남,
로자 룩셈부르크
곳 : 가정관 씨네마테크
때 : 3월 25-29일 / 3시, 5시

연 극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 극단 '한강' - 모든 단단한 것은 자취없이 사라지고...

곳 : 가정관 소극장
때 : 3월 28-29일 / 5:30

그림전

前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그림전

恨이 한 폭의 그림되어...
곳 : 가건물 전시실
때 : 3월 25-29일 / 10:00-5:00

여 성

여성단체들과의 "만남의 광장"

곳 : 이화광장
때 : 3월 27일 / 11:00-5:30

강 연

섹슈얼리티의 정지와 페미니즘

강사 : 서동진
곳 : 가정관 319호
때 : 3월 26일 / 6:00

우리시대의 연애와 사랑

곳 : 가정관 319호
때 : 3월 29일 / 6:00

YS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는 여성정책들.
아무튼 여성들도 유권자니까...?!
(여성이 유권자가 아니었던 그 시절..끔찍하군..)

그렇지만 지금 여성정책은
사실상 벼랑 끝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다!



담론공장
NEVER ENDING STORY
순결한 이화
이대와 이대생

영가 품 너만

담론공장

성정치팀

우리는 성 정치팀으로 모였다. <성정치>. 그 이름이 하도 거창하여 무엇을 이야기하여야 할지에 대해 막막해했다. 하지만 다섯번의 모임을 갖는 동안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개념어를 써가며 답답해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풀어 놓을 수 있었다. 작게는 생리에 대한 불만과 과로움에 대해서 크게는 오르가즘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 하였다. 그 이야기중 발췌하여 우리의 일지를 써나가도록 하겠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 땅의 많은 모순들을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희망하면서.

3월 3일 (일)

<페미니즘 문화제>를 한다고 총학생회실이 떠들석했다. 대학3년에 총학생회실은 처음

인지라 좀 망설였는데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과는 다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힘있고, 밝고, 살아있는 분위기. 이번 총학생회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걸었던 페미니즘 문화제의 연구팀에 내가 연줄을 타고 들어 오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페미니즘에 딱히 관심을 가지고 <여성> 얘기만 나오면 열을 내는 준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답답하게 살면서 대학 3년을 다니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대생>이 되었고 <이대생>으로서 나에게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언제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처럼 나는 답답하게 첫 세미나를 시작했다.

3월 5일 (화)

한마디로 문화적 충격이었

다. 내가 읽은 책의 역자(제프리 워스의 '섹슈얼리티의 정치'를 번역한 서동진氏)이기 때문인지 친근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이 땅의 남성이 음담패설, 의학용어 빼고는 여성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내심 놀라왔다. 책 뒷장 들춰보고 여성해방 운운하는 것보다 스

"Why is this Web page blacked?"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 non-profit civil liberties organization working in the public interest to protect privacy, free expression, access to online resources and information



스로의 몸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이 더 페미니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멋진 남성이....우리와는 아주 이질적일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똑같은 사람이었다. 내가 게이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이나 선입견들이 얼마나 이성에 중심적이었

던가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슬픈건 여자인 내게 그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3월 8일 (금)

오늘은 <아>한 얘기만 했다. 누가 들을까봐 궁쳐있다가 혼자 야금야금 생각하면 머리 카락이 쑥쑥자란다는. 야한 애

기를 만드는 인간들은 누구일까. 아마도 남자이거나 남자편인 인간들이겠지. 우리는 야한 얘기를 하면서 웃기보다는 열을 내었고 웬지 씩씩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3월 10일 (일)

오늘은 우리팀만 서동진씨와 세미나를 하는날. 처음 만났을때는 남사스러워 못했던 말들도 전혀 개의치 않고 떠드는 우리들. 왜 우리는 성에 대한 얘기를 금기시 했는지 의아해하면서 서동진씨를 기다렸다. 공부 안한다고 또 한번 쿠사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성적인 영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것. 여성의 신체는 더이상 과장되거나 신비화되어서는 안된다. 안된다.

3월 13일 (수)

모두들 지쳐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대신 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우리가 쓴 쪽글들의 일부를 정리해 보고 있다.

"포르노 보러가자!"
포르노는 남성전용?
포르노 보는 여자는
밝힘중?



(인도 카탈리) (1985)

"나는 할 얘기는 많은데 할
말이 없어"

신나게 어려운 개념들을 섞
어가며 열내던 우리는 어디로
간걸까. 나는 할 얘기는 많은데
할말이 없다. 모든 생각들이
꼭 뭉쳐져서 풀리지 않고 있
다. 내(언어)라는 도구가 온전
히 나의 것이 아닌 (다른이의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난 내
가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를 만들고 싶다.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해결 방법
은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언어를.

막상 여자에게 금기시된 영
역의 얘기를 풀어 보기 시작하
니까 모든 비공식 영역에서의

성에 대한 얘기가 남자의 입
장에서 말해지고 여성은 그속
에서 대상으로만 존재하며
남성의 성욕을 풀어 놓는 공간
으로 얘기되어 지더군. 우리가
여성 자신의 입장에서 언어와
얘기구조가 없는 것 같아. 이렇
게 말을 할 수가 없다니.....

"아저씨 생리대 주세요"

텔레비전을 아버지와 함께
보고 있다. 모자와 지팡이를
든 여자가 나타나 "매직, 매직"
하는 선전이다. 날개 달린 생
리대가 화면을 메운다. 아빠가
한마디: 예잇, 별것 다 선전 하
네!

동생한테 생리대 사오라고

시켰다. 이른 아침에 편의점에
심부름을 보냈더니 그냥 왔다.
남자놈이 생리대 사서 뭐에다
쓸거냐며 안주더라.

이번 생리도 옷에 묻히고 지
나갔다. 생리때마다 바지에 피
가 묻는다. 내가 몰래 빨아 널
은 팬티만도.....

남자친구가 지나가면서 하
는말 "(의미심장하게)여자들
은 화장실 갈때 꼭 주머니를
갖고 다니더라" 왜 여자들이
생리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쉬
쉬 하는거지? 월경이 <죄>인
가?

과외하는 여중생 "우리반 애
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요.

생리대를 그냥 짹 펼쳐놓고 버
렸어요. 그거 치우는데 기분
나빠서 혼났어요. 그런데 학교
아저씨가 쓰레기비닐을 보자
고 하니 얼마나 민망한지..."
왜 여자애들을 생리하는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걸까? 어
른이 되는게 쑥쓰러워서? 피가
끔찍해서? 성적으로 준비된,
조심해야 하는 여성으로서 길
들여져야하니까? (나역시 생
리대는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
다고 본다. 미관상이라는 이유
를 달지만 생리를 한 흔적은
불결하다는 내 의식 때문이겠
지)

내 생리통 없애 준다면 나도
2년 군대 갈 수 있다. 왜 군필
자는 사회적으로 우대해 주면
서 생리하는 여성은 차별하
지? 아마 남자들이 생리를 해
서 생리통으로 고생 한다면 지
금처럼 '전통제' 밖에 없지는
않았겠지

우리학교 여성학 강사 황은
자 선생님을 뵈고서 "월경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
요? 피? 사실 피는 부차적인
거예요. 생리할 때 이상한 섬
유질이 끈끈하게 나오죠? 그
게 태반이에요 월경은 여성이
임신 가능한 상태로 태반을 유

지하다가 그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태반과 연결된 모세 혈
관이 자궁내 태반과 연결 되어
있다가 떨어져 나오니 부차적
으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런 생명탄생의 기반을 위한 월
경의 작용이 피라는 이미지 때
문에 많이 왜곡되었죠. 특히
남성들이 신기해하면서 두려
워했던게 터부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죠. 무당들도 월경
할때는 불결하다고 굿을 안하
고 제수음식 장만 때에도 월경
하는 여자는 빼잖아요."

미국의 여성운동가 "남자가
멘스를 한다면? 아마 과학자
들은 "우주의 순환원리의 본질
인 월경을 통해 느낄 수없는
여성 참된 우주의 원리를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이다." 성
직자나 권력자들은 "한달에 한
번씩 치르는 정화의식이 없는
여자들은 본질적으로 깨끗하
지 못하므로 성스러운 인간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열등한
존재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결국 논리란 만들어 질 따름이
다. 우월한 집단이 지니는 특
성은 그 우월성을 강조하는데
쓰이고 집단의 특성으로 활용
된다."

우리는 당당히 외친다. "우

리는 생리하는 주체이다!"

"포르노 보러가자"

포르노는 남성전용인 것처
럼 보인다. 왜? 여자들이 밝히
면 욕 먹으니까. 포르노 주연
은 여성인데. 참 말도 안된다.
포르노에 나오는 여자는 여자
라기 보다는 성적으로 대상화
된 환상일뿐이다. 보여지는 인
형일뿐이다. 여성은 부수적인
존재로서만 존재한다. 여성이
주체화된 사회에서는 여성도
동등한 성욕을 인정하고 표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포르노를 본적이 없다.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볼 기
회도 없었다. 그릇된 성을 배
우느니 차라리 무지한게 낫지
않을까.

날 잠아서 보기로 했다.

"10년전을 돌아보며"

검은 커튼이 드리워진 움침
한 방으로 국민학교 5학년 여
자애들이 몰려 들어간다. "나
는 뭐 보러가는지 알지" 남
자애들이 놀린다. 문은 닫히고
여선생님은 나직이 얘기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아이에
서 어머니가 될 수있는 어른이
됩니다. 우리 몸을 잘 알고



"부추기고 과장되는 남성의 성,
주눅들고 움추러드는 여성의 성"

조심해야 해요" <자궁이>, <월경이>, <생리대사용법> 등등의 비밀도 아닌것을 커튼까지 닫고서. 교육을 받은 여자아이들은 이제부터 자신의 신체는 함부로 침범당해서는 안되는 꼭꼭 숨기고 보호해야하는 대상이 된다.

남자애들은 이미 도색 잡지를 통해 성기 중심적이고도 강간적인 성을 배우면서 언젠가는 따먹을 육체에 대해 상상하고 있는 동안 여자아이들은 순결교육을 받고 있다. 부추기고 과장되는 남성의 성, 주눅들고 움추러드는 여성의 성 이러한 성교육 속에서 서로에 대한 성의 개념은 너무도 다르다. "남성은 스핀쉽을 관계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여성은 스핀쉽을 관계의 끝으로 생각한다." 던 여성학 수업이 생각난다. 순결 위주의 여성의 성교육, 방치하에 음성적으로 길들여지는 남성의 성교육 이게 바로 올바른 성교육일까?

"아저씨 내 엉덩이 만지지 마세요"

전철에서 책을 읽던중 내 자리 옆에 서 있는 어떤 중년의 남자가 나만 볼 수 있도록(?) 자신의 페니스를 꺼내놓고 만

지고 있다. 그러한 "서비스"를 왜 나한테만 베푸시는지. 내가 보고 놀라자 다음역에서 내렸다. 아마도 노출증?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순간의 제 욕구를 발산해야만하는 충동을 가장한걸까? 아니면 병적인? 남자는 "본래" 성욕이 강해 충동이 생기면 발산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제 페니스를 전철칸에서도 꺼내 놓고 흔들는 인간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논리인가?

내가 <성욕>에 못이겨 전철칸에서 남자의 페니스를 쥐고 흔들다면 아마도 경찰서로 법정으로 불러 다니느라고 학교를 한참은 쉬어야 할 걸.

이쯤에서 우리는 잠시 쉬기로 했다.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모두들 자신이 없다. 우리가 우리를 모르는 것은 단지 우리의 책임일까. 책에는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진리인양 둔갑을 하고 있고 지금 횡횡하는 지식도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떠한 것도 믿지 못하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까? 모든 지식과 연결된 <힘>들을 그대로 우리가 묵인한다면 우리를 억압하는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을것이다. 우리가 원하는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것은 크고 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들과 연결된 힘의 고리를 변형시키는 작업이다.

감추어져야만 했던 우리의 신체, 신비화되어 왜곡된 우리신체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작업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눈이 무엇인지를 알 기회가 없어서 눈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그

리고 우리의 언어가 없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가슴속에 묻어만 두고 말로 풀어내지 못했다. 성정치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시작했던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 보면서 우리의 숙제가 무엇인지 아는것으로 이번 모임의 의의를 달았다. 그 숙제는 이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계속되어야 하는 너무나 길고 어렵고 모호한 것이다. 말로는 확실하게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 숙제가 무엇인지는 가슴은 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지금껏 우리가 열을 내며 토론했던 소중한 얘기들이 그냥 묻혀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정에 있지 길의 끝에 있는게 아니며 팔장을 끼고 구경을 해야할 때가 아니라 화를 내야 할 때이다. 바보같이 화를 내는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화를 내야 할때이다.

성정치는 순결이데올로기에도, 외모의 정치학에도, 결혼에도, 영화에도, 매스미디어에도 모두 적용이 된다. 맨처음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녹아 있는 정치성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를 건드리기엔 우리의 능력이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가도 알았다. 하지만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섯명이 모인 작은 힘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이데안에 산재한 힘들이 모일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 힘들이 커져서 곧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다섯번의 모임을 마쳤다.

Never Ending Story

- 언젠가는 끝내야 할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자신과의 갈등을 일으켜 본 적이 있으시죠? 특히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느껴온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데 마음 속의 상반된 생각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한 적이 많지 않으십니까?

저희 팀은 이런 경우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드러내고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제 중에서 순결, 낭만적 사랑, 취업, 결혼의 4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문제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생각했고, 또 여성들이 하나의 완전한 주체로 서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I. 순결

여러분은 순결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잃어버리는 경우 그 여자는 부도덕하고 보호할 가치도 없는 존재로 취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순결이라는 것 자체가 미혼 여성에게 혼전 성관계를 금기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순결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니까?

아마도 대부분 여성들의 생각은 '순결은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결혼할 때까지 지키고 싶다.'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밤늦게 다니지도 말고 남성들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시키지 않을 복장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무의식적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을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감정적이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밤늦게 감정적인 남성을 자극시킬 복장으로 혼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단지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처음 보는 감

정적인 남성이 휘두르는 폭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남들에게 스스로 내보일만한 순수성이 없어진다는 것 때문일까요? 그러면 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좋아하는 마음 뒤에 항상 왠지 모를 두려움이나 갈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과 연애의 연관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들이라면 순결이라는 것을 지켜야만 한다. 또는 지키고 싶다는 사회적 통념과 이데올로기와 그 여성 스스로의 욕구와 의식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런 갈등을 느끼게 하는 순결이라는 것은 성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어떻게 순결을 잃게 되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순결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저 여자는 버린 여자다.'라는 결과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고 사회적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며, 또 여성이 인간적,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성적인 주체로서의 성적 자율성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에 반해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 실제 상황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고 속에 박혀있는 순결에 대한 생각들을 형성시켜온 여러 사회적 규제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감정적인 동물인 남성을 두려워만하며 체화된 순결 이데올로기와 성의 자율성간의 갈등을 계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II. 낭만적 사랑

여러분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이트 로맨스류의 소설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저 남자 주인공은 돈도 많고, 얼굴도 잘 생기고 다갈색 피부에, 지적이고, 힘도 세고, 몸매도 근육질로 잘 빠졌으며 여성들이 많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키지 않아서 모든 여성들과 관계를 단절하며 살아가는 남자, 그것도 대부분은 40대 중반의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 주인공을 어땠습니까? 탐스러운 금발머리, 그리 예쁘지는 않지만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으며 자그마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가슴은 풍만하고, 집안이 가난해서 학벌이 높지는 않지만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아는 것이 많으며 항상 호기심이 가득한 천진난만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설 속의 상반된 두 주인공은 한 번의 만남으로도 서로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채 헤어지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의 만남을 통해 능력 있는 주인공 남자는 자질은 풍부하게 있으나 그럴 능력이 없는 그 여성을 옴으로 양으로도 봐주면서, 신이 짝지워준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자라온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 속에 '사랑이란 저런 것이구나, 나도 이 다음에 저런 낭만적인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직접 이성과의 만남들을 경험하면서 그 소설들은 단지 소설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사랑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동등한 관계로 시작하고 싶었던 남녀의 관계도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

수룩 동등하기보다는 여성이 보호받고 싶어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남자와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물건을 혼자서 들고 가는 여성을 볼 때 느끼는 웬지 모르는 불쌍함.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즐겁게 놀면서도 장소는 여자가 결정하기보다는 남자가 주도해서 가자는 대로 이끌려 가며 돈은 거의 대부분은 남자가 지불하게 되는 것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낭만적인 사랑을 바라는 요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의 주류인 남성들이 그들의 홀로

을 꿈꾸면서 그 불평등을 남성의 보호막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존엄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남성의 사랑으로 감싸버리고자 하는 것과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여성들에게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III. 취업

요즘은 취업여성이 부쩍 늘어나는 경향을 보



우리 사회 '순결'은

성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

단지 '순결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저 여자는 버린 여자'라는 결과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닐까?

한 제도인 가부장 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인 허상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난 그 소설 속의 여주인공처럼 금발이지도 않고 자그마한 체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능력이 없지도 않으며 이 세상의 남자들이 모두 그렇게 돈도 많고 몸매도 멋있으며 지적인 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 위와 같은 낭만적 사랑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를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바램에서 나온 하나의 희망일 뿐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것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는 낭만적 사랑

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이렇게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을까요?

최근까지도 남녀 불평등 고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여성이 똑같이 입사한 남성들보다도 보수 면에서도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외의 다른 면에서 여성을 '사무실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마음대로 입고 다닐 수 있는 옷도 여성들은 꼭 스커트를 입어야 한다든지, 화장을 안하고 가더라도 하는 날이면 엄청난 핀잔을 듣게 되는 등의 일들이 여성이 취업해 있는 회사라면 비밀비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 가진 직장에서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남성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비위에 맞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못한 채 직장 내에서 남성들에게 부과되어진 이외의 다른 것들을 지키기 위해 뒤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고치려는 시도보다는 그것에 순응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지않고

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아실현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 직업을 가지려고 하거나 또는 생계수단을 위해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직업을 구할 때 결혼한 뒤의 상황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업을 구해서 자신 스스로의 생활을 해 보기도 전에 그 직업을 부업처럼 생각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한 취업인데 왜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많은 것일까요? 사

남성의 보호막으로
가려진 불평등의 관계가
낭만적 사랑의 시나리오?!



열심히 공부만 해서 자신이 가진 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는 고민과 자신의 외모를 잘 꾸며서 어떻게 하면 직장을 얻을 때 그것을 통해 가산점을 얻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 사이에서 갈등하는 적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문직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면서도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는 경우 가정에도 완벽한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전문직 여성의 경우 둘다에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하나에 소홀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를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경우

람들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곳을 결혼 이전에 잠시 들리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아도 날 책임져 줄 한 남자가 생겼기 때문에 어렵게 구한 직장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 것일까요?

사회가 점점 발달해감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나고, 또 자아 실현을 요구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아 실현보다는 남성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 아닌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성차별적인 고용 방침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왜

분개만 할뿐일까요? 왜 자신이 그런 것에 무의식적으로 순응하면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오랫동안 받아들여져온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사회 속의 생각들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을 우리 여성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IV. 결혼

‘에이, 다 귀찮은 데 시집이나 가버리지, 뭐!’



배우자 선택의 기준 :
 “나보다 잘났으되 나에게만은 과시하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남성.”
 ...언제까지 결혼이 여성의 삶에 있어서
 탈출구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떨 때 위와 같은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취업, 부모와의 갈등, 계급 상승 등의 문제들과 나의 요구가 대비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탈출구로서 결혼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자신과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십니까? 나보다는 좀 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보수도 좋고 안정적인, 즉 남이 보기에 능력이 나보다 더 많은 남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나에게만은 그런 능력들을 과시하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상위적인 입

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남성들을 바라지는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결혼이라는 것이 여성의 삶에 있어서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진정한 탈출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혼은 결코 탈출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무엇인가를 해결하려 든다면, 그것은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않은 하나의 일시적인 회피의 방법일 뿐입니다. 즉 사랑이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최대한 평등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인 반면 결혼이나 가족과 같은 것은 사랑이 바탕이 되었다고는 하나 가부장제와 성불평등이 집약된 제도입니다.

요즘 결혼이라는 제도를 불완전한 인격체가 만나서 서로 도와가면서 좀더 완전한 개체로 성숙해간다는 쪽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지위상승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혼이라는 것에 도달하면 점점 현실적이 되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성이 결혼을 통해 지위상승을 이루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당연시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배우자인

남성의 도움으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받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기회와 자기 스스로 성취한 것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내 이름으로 인정받는 것과 어느 남자의 아내로서 그의 이름 뒤에서 인정을 받는 것 중에서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 질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

어릴 적부터 자라온 환경이 다른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각기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지 주제를 순서대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주제들은 모두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마음 속의 고정 관념과 좀더 인간적이고 주체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저희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같은 세대에 사는 사람들로써 함께 겪고 있는 문제를 공유해 보고자 노력하였고 또 이 글이 여러분에게 공감을 느끼게 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선택은 누구도 내려줄 수

여성 고용문제를 다룬
 마고트 알바레즈의 광고포스터
 「9부터 5시까지 자물쇠를 풀어라」



여성들이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일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독하고 여자로서 해야 할 도리도 못하면서 남자들이나 하는 일에 참견하는 여성’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결혼이 언제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만한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제까지 순결, 낭만적 사랑, 취업, 결혼의 4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이것들이 우리 여성들이 하나의 인간적인 주체로서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것도 아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는 우리들 자신이고 우리들이 한데 모여 우리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현실을 극복해 보려는 용기와 집단적인 노력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좀더 확실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독설은 어때?!

남자가 멘스를 한다면...

글로리아 스테이넵(미국의 여성운동가)

나는 최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여성에게 예상치 않은 멘스가 찾아온 일 때문에 대단히 당황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레스가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모두 남자로 이루어진 관중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 멘스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일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모임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멋진 일일 겁니다."

관중들은 모두 웃었고, 또 안심했다. 그녀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우월한' 집단이 지닌 것이라면 무엇이든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열등한' 집단이 가진 것은 모두 그 열등

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흑인들은 그들이 백인들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보수가 적은 직업 밖에 가질 수 없고, 여성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수가 적은 직종으로 밀려난다. 어떤 소년에게 너희 엄마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냐고 물었을 때 그 소년이 "아뇨, 그건 여자들 일이잖아요"라고 대답했다는 조크가 있다. 논리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과는 상관없이만 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날 갑자기 이상하게도 남자가 멘스를 하고 여자는 하지 않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되면 분명 멘스란 부럽고도 자랑할 만한 남성적인 일이 될 것이다. 자기가 얼마나 오래 그리고 많이 하는지 자랑삼아 떠들여댈 것이다. 소년들은 이제서야말로 진짜 남자가 되었다고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과 종교적 의식, 가족들의 축하행사, 파티들이 마련될 것이다.

의회는 지체높은 위인들의 노동력 손실을 막기 위해 국립 월경불순연구소에 기금을 조성할 것이다. 의사들은 심장마비보다는 생리통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할 것이다.

생리대는 연방정부가 무료로 배포할 것이다.

장군들과 우익정치가들 그리고 종교적 광신자들은 멘스 menstruation을 남자들만이 싸움을 통해 신과 나라에 봉사하고("피를 얻기 위해선 피를 바쳐야 한다"). 높은 정치적 지위를 차지하고("화성이 지배하는 주기에 따라 일어나는 신성한 멘스 없이도 여성이 그런 자리에 합당할 수 있단 말인가?"), 목사나 신부 혹은 신("신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피를 주셨다"), 뭘 수 있다는 증거로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과 급

진주의자들은, 여성들은 동등하며 다만 다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멘스권의 우선성을 인정하기만 하면, 혹은 그녀들도 매달 한 번씩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기만 한다면("혁명을 위해서라면 여러 분도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들도 나성의 지위에 합류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배경은 긍정적인 사건으로 찬양될 것이다. 즉 남자가 이제는 더이상 지체를 축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멘스했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모든 분야의 자유주의적인 남성들은 '그 사람들'이 인생을 측정하는 능력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해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러한 주장들에 찬성하는 우익여성들은 단호하고도 즐거운 매저키즘으로 반응할 지도 모르겠다. 개량주의적 여권론자들은 자기 주변 남성들의 생리주기에

자신의 생활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멘스선망'이라는 족쇄를 떨치고 일어나야 하지만, 남성들도 화성공격성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주의를 철폐하기만 하면 여성들도 멘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아직도 러시아의 여성들이 멘스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자본주의의 포위 때문에 진정한 사회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이미 예상했듯이) 논리란 만들기 나름이다. 예를 들어 이론가들과 논리학자들을 위해 한가지 문제를 내보자. 만약 여성 호르몬이 가장 낮은 수치에 있는 멘스 초기에 여성들이 이성적이라기 보다는 감성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며칠 동안 여성들의 행동은 평상시 남성들의 행동과 가장 가깝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는 이외에도 많다.

하여간 사실은 이렇다. 만약 남자들이 멘스를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온갖 소리를 다 늘어놓을 것이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면 말이다.

-[여성 망명정부에 대한 공상]. 글로리아 스테이넵, 현실문화연구, 1995 중 -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비멘스제도에 대한 억압은 모든 억압의 원형이라고 덧붙일 것이다(뱀파이어들은 최초의 해방 전사였다!). 문화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의 문화와 예술에는 피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찬양할 것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일단 자본주의와 제

이대와 이대생

이대팀

"이대생들은 거의 다 담배를 핀다면서?"

"어! 이대생이세요? 그럼 시집 잘 가시겠네요."

"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너 이대생맞아?"

'이대'하면 떠오르는 말-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개인의 이화인과는 별개로 근거없이(?) 떠돌아다니는 많은 말들. 이런 말들은 이대가 명문대이기때문에?, 아니면 여대라서?, 이것도 아니라면 학교 앞 상업 문화 때문에 생겨난 말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무엇때문에 생겨난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대생을 규정짓는 말들의 의미를 '젊은 여성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각에 대한 분석'이라는 입장에서 고찰, 비판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이화인 내부의 '극복되어야 할', 그리고 '숨겨진(?)' 의식구조에 대해서도 깊이 자성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 조사방법을 이용했으며, 외부인이 바라본 이대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타대생에게 200장을, 이화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대생에게 100장의 설문지를 무차별 배포하여 총 수거된 설문지는 275장이었다.

<이대생에 대한 '외부'의 시각>

(설문대상:남자 131명,여자 48명 총 179명)

1번과 2번 문항을 통해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대생(이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반적으로 이대생(이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3번과 4번 문항은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대생(이대)과 실제로 알고 있는 이대생(이대)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5번 문항을 통해 이대를 '일반대학의 이미지'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여자들만이 다니는 '여대의 이미지'로 바라보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문1. 귀하는 이화여자대학생(이하 이화인 또는 이대생)에 대해 이야기하십니까?

- 1) 예 → 남자 55명, 여자 34명 총 89명
- 2) 아니요 → 남자 76명, 여자 14명 총 90명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이대생(이대)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대답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비율적으로 더 많았다.

문2. 이대생(이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성숙해보인다.(옷차림, 화장등 외모면에서) → 남자 33명, 여자 17명 총 50명
- 2) 사회(ex)노동문제, 정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

→ 남자 29명, 여자 11명 총 40명

3) 주관이 뚜렷하다.

→ 남자 22명, 여자 6명 총 28명

4) 학구적이다.

→ 남자 12명, 여자 4명 총 16명

5) 기타 → 총 45명

롯데가 높다, 비학구적이다 등의 기타의견을 포함한 이대에 대한 사회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더 많았다. 또 타대와 동일하게 보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이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는 '사회에 대한 논의는 남자들의 몫이고, 여자들은 사회보다는 개인적인 일(화장품, 악세사리, 옷, 요즘에 사귀고 있는 남자 친구등)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다. 다시말해서 '여자들만 다니는 여대는 다른 남녀공학보다 외적으로 잘 꾸미지만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듯 하며, 여기에 학교 앞 상업 문화가 이러한 생각들을 더 견고히 해주고 있는 듯 하다.

문3.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대생이 있습니까?

- 1) 예 → 남자 55명, 여자 34명 총 89명
- 2) 아니요 → 남자 73명, 여자 13명 총 86명
- 3) 무응답 → 4명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잘 알고 있는 이대생이 있다고 응답하여 우리는 이대생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인식의 차이 유무를 구분해낼 수 있는 비율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문4. 당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이대

생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대생의 모습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3번 문항의 1)번 응답자만 해당)

- 1) 예 → 남자 29명, 여자 17명 총 46명
- 2) 아니요 → 남자 19명, 여자 11명 총 30명
- 3) 무응답 → 13명

문5. 당신의 주변인물에게 대학을 추천한다면 이대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1) 예 → 남자 41명, 여자 13명 총 54명
- 2) 아니요 → 남자 85명, 여자 33명 총 118명
- 3) 무응답 → 7명

응답자의 2/3가량이 이대(=여대)보다는 남녀 공학을 선호했다. 그 이유로는 여자들만 있는 여대보다는 남녀 공학이 폭 넓은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나중에 사회 생활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다가 대다수였다. (기타 조금은 무성의하게 작성되어졌다고 여겨지는 설문지들 중에는 여자들끼리 있어서 뭐하겠냐는 투의 비아냥거림도 다수 존재하였다.)

우선 '객관적으로 남녀공학을 선호한다'는 입장의 생각들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남녀 공학이 여대보다 더 다양한(남자를 포함)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느 부분에선 인정 가능하다. 이는 이 사회 내에서 여대 존속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와 맞물리는 얘기일 수도 있다.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외부인은 여대가 고루하고 편파적이고 성이거주의적으로 교육되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대생들이 왜 학년을 거듭하면서 점차 '이대'를 긍정하고 여대를 옹호해나가는 지



에 대해 잠시 짚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적이라는 사실에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 내에서 이대생에겐 적어도 이대라는 공간은 '여성이 주류인'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점.. 이것이 바로 이대생이 점차 이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게 되는 기반이 아닐까? 여기서 여성이 주류가 되는 사회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이는 남성을 잘아묻댄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화는 '여성'이라는 존재에 기반을 둔 여자대학교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경험들과 생각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렇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신감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여대의 존재성은 여전히 중

요하다고 보여진다.(물론 개인의 자질 이전에 각각이 남녀의 구분으로 먼저 판가름나는 이 사회의 가부장적 현실이 해소되면 여대의 존재 필요성은 상실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 외에도 남녀공학 선호의 입장의 선입견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대의 경우 중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러 타대학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 그 반면, 남녀 공학도 공대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남학생이어서 위의 논리대로라면 공대생들은 남녀 공학임에도 불구하고 폭 넓은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 생활의 적응

이라는 측면도 역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남녀 공학의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남학생이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위 '사회 생활의 적응'이라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적응이 아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각 성에게 요구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길들여져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여대의 경우, 여성 자신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 잘 적응해 갈 수 있다.

이대를 추천하겠다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랜 전통의 명문대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기성세대들이 이대를 선호하는 이유로 꼽는 '시집 잘 갈수 있는 간판('대학 본연'의 의미와는 상관없는!)'이라는 이유부터 시작하여, 열심히 성실히 공부한 여학생들이 세련되게 모여 있는

잘나가는 여자'의 표상으로서의 이대의 이미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대는 보통 다른 일반 대학들이 갖는 이미지보다는 '여대'라는 특수한 지위가 주는 이미지로 외부인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화인이 보는 이화인〉

설문 대상: 이화인 96명

문1.사람들(사회)이 이화여자대학생(이하 이화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96명
- 2) 아니요 → 0명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화인들 100%가 사람들이 이대생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2.어떤 편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 1) 잘 꾸민다.(ex)예쁘다,화려하다,사치스럽다등) → 10%
- 2) 사회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개인주의적 성향을 띤다.) → 46%
- 3) 남자 친구는 서울대,연고대생만 사귀다. → 21%
- 4)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다. → 16%

이대생에 대해 외부인이 갖는 생각 중 가장 많이 차지한 '외모상의 성숙'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보다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적다'라는

부분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응답하였다. 여기엔 외부인이 갖는 이대생의 이미지 중 외모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선 '편견'이라는 피해의식보다는(오히려 세련되었다라는 이미지로 많은 이화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나), 사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 대표되는 지적 영역에서의 고정관념이 가장 큰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기타 의견으로 공부에 안하고 놀기만 한다.(4명)시집을 잘 간다.(2명)등이 있었다.

문3.위의 질문 2번보기와 같은 혹은 기타 다른 편견을 지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런 질문들을 받아보셨습니까?(ex)"이대생은...", "넌 이대생인데..."

- 1)이대생 → 2명
- 2)어른들 → 28명
- 3)타대 여학생 → 32명
- 4)타대 남학생 → 64명 그 외 4명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대 내에서보다 외부인에게서, 그리고 타대 여학생(=여자)보다 타대 남학생(=남자)에게 그런 말 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2.의 응답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다. 타대 남학생들로부터 이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율적으로 많이 받았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문제에 민감하고 훨씬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의지를 보인다'라는 인식(현실인지 선입견인지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순 없지만...)에 의해 '이대생은 사회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는 편견을 받는다라는 이화인의 생각을 밑받침하고 있으리라 보여진다.

이 개인주의적 성향이라는 부분을 잠시 언급

하고 넘어가보자.(이는 비판적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추론시켜본 결론이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대생 스스로가 (지나가는 식으로라도)지적하는 문제점 안에 담긴 속앓이일 수 있겠다는 판단에 삽입한다.)

이대생의 개인주의적 성향 속에는 "나는 다를꺼야"라는 단일한 특권의식이 존재한다고 추측한다. '나는 여성이라도 잘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은 우리가 이화에서 긍정적으로 느끼고 체험해 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회 내에서 여성이라는 비주류 성의 집단(결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나가서 깨진다.("교수님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사회가 여자한테 얼마나 더러운지 아느냐. 도대체 여성학, 여성주의가 할 수 있는게 뭐냐"는 조소섞인 절망감... 이게 바로 우리 이화인들이 [우물안 개구리]라고 보는 사회의 시선이 아닐까?)

문4.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화인의 모습과 귀하 자신의 모습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0명
- 2) 그렇다. → 9명
- 3) 약간 그렇다. → 43명
- 4) 아니다. → 44명

이화인들은 어느정도 사회의 편견이 맞다고 인정은 하지만 더 많은 이화인들은 아니라고 그 편견을 부정하고 있다. 여기엔 사회에서 바라보는 이화인의 이미지가 이화인들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이 많이 개입된 듯 싶다. 즉 이대생은 나름대로의 이

을 내적으로 지니는데 외부의 편견이 그걸 제대로 읽어주고 인정해주질 않는다는 불만일 수도 있겠다.

문5.당신이 알고 있는 이화인의 모습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이 질문에 <이화에 대한 외부의 시각>의 문 2,4번 결과와는 상반된 답변이 나왔다. 이화인은 이화인을 약간은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지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적극적이며, 주관이 뚜렷한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을 꾸밀 줄 알 뿐 아니라, 자신의 개발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각개약진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 성실한 모습은 대다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화인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대다수의 대답에서 지적되는 것으로 보아 이대생 각 개개인이 서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문6.사람들(사회)의 이러한 이화인에 대한 인식이 당신에게 그들의 인식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을 준 적이 있습니까?

- 1) 예 → 36명
- 2) 아니요 → 45명
- 3) 무응답 → 15명

'예'라는 대답과 '아니요'라는 대답들 중 후자측이 좀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니요라는 대답에는 외부편견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서 '이화대생에 대한 그런 부정적 생각에 자신을 끼워맞추고픈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과,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어짜피 잘못된 인식이고 이화가 편견을 받는 부분일 뿐이다. 나를 그러한 축으로 밀어넣지 말아라. 나는



'EWAH' 마크가 그려진 티셔츠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자존심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다르다'라는 분리주의적 발언이 같이 혼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여기서도 사실은 이화인이 각각 개인적으로 그러한 외부 편견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주의적이라는 이화인 자신의 판단은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이대생이 영향을 받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실제 이대에 대한 편견이라고 이화인들이 읽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면화로 인한 자성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화인(이대)을 향한 말들이 이화인들에게 상당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설정하게 된 이유로는 우선 우리 자신이 소속된 공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

준비기간이 짧았던 차에 이 연구 속에 위의 목표를 심화시켜 풀어내진 못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화인들이 생각하는 이화인의 모습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이화인의 모습이 어쨌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이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다른 남녀공학대들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른 여자들만 있으면 어딘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을 거라는, 그리고 그로 인해 여대는 편협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여대의 존재성'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대가 재단되고 있음 또한 알 수 있었다. 여기엔 사실 '남성 위주'의 생각으로부터 기인되는 오해와 현실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한 생각의 '좁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비록 설문을 배포한 단위가 (특히 타학교의 경우) 저학년이 많아 이번 설문분석을 우리사회 일반의 인식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어쨌든 곱지 않은 시선들을 실감할 수 있었고, 아울러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화인이 절대 다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위 잘나간다 싶은 여성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남성들의 시각과, '나만 안 그러면 되는거 아냐?..'하는 단일하고도 개인주의적인 이화인의 모습들도 함께 맞물려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대의 이미지 중 잘 꾸미

고 다닌다는 '성숙'한 여성상으로서의 이대의 이미지에 역으로 이대생은 대사회적이고 거시적인 관심보다 자기 개인을 잘 가꾸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혹은 있을 것이라든 생각이 전제되고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이대생 스스로가 느끼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맞물릴 수 있는 이화의 외부 인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외부인들이나 이대생 자신이 그다지 심각하게 문제제기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은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이고, 당당하게 해준다.'는 자기긍정적 모습과 '여대생(여자)'는 다 그런게 정상이니까...'하는 여성 전체에 대한 선입견이 동시에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자신이 굳이 '꿀릴' 필요 없이 자신감을 유지할 부분도 있지만, 지나치게 매몰된다는 부정적 이미지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언제나 외출타기를 해야 한다는 여성으로서의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고 만다. 이에 대한 이화인 그리고 여성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 정립되고 그것을 공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나 이화인 자신이 느끼는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부분은 분명히 이화인 스스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 분명 존재함을 잘 보여준다. 이화에 입학하는 초기의 많은 새내기들을 보자. '미팅은 SKY대랑 해야지 자존심이 서지.' 등의 팽배한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특권화시키면서 '나는 다르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하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생각들 안에는 우리는 여자보다 남자가 학력이 높아야 한다는 식의 종속 관념과 이 사회에 만연된 남성위주의 시각을 덧씌워서 우리 자신을 고급결혼의 대기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결국 '결혼'이라

는 목표 아닌 목표로 알게 모르게 매진하는 우리들 상황은 각 여성끼리 남자에게 간택받기 위한 경쟁자로 내몰고 분리시킴으로서 개인주의적(사실은 연대감을 저해하는 분리주의적) 성향을 좀 더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건.. 과연 논리의 비약 혹은 과장에 지나지 않은 걸까??

마지막으로 던지는 한마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한다. 그러나 그 주도하는 것은 개개별로 불가능하다.

우리의 색깔에 묻어 있는 오해의 퇴색빛을 제거하고 싶으면 우리 자신의 자성부터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외부 편견과 부딪쳐야 한다. 소위 이 사회에서 이대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은 단지 '이대'라는 공간에만 딱히 적용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여성 자체에 대한 편견이 집약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 전체에서 여성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이대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이대생 자체가 느끼는 스스로의 문제점이라는 지점을 연결지어 바라보아야 한다. 진정한 이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찾아나가고픈 우리. 당찬 이 사회의 주체로서 인정 받는 여성이 되고 싶은 우리라면 [EWA]마크가 그려진 티셔츠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자존심을 넘어선 그 무엇을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이화가 여지껏 지녀왔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지켜야 할 우리의 진정한 자긍심의 색깔이 아닐까?!

** PC통신 대화방의 대기실에 있던 음란한 대화명 (ID 삭제) **

야한30대남, 원초적 본능, 섹시교사, SEXY황제, ?고민상담
폰섹잘켜줘, 컴섹GIRL설~~, CYBER..X~?, 폰섹~~, 야녀없나?, 야한여구함
섹스를..... 키스, 너따르니까, SEX~PONE, SEX, Y'WANTSEX?
SUPERPENIS, FRENCHKISS, SNAKE, 단단한물건, 강철거시기, 나꺼커요!,
서있는놈, 노련한섹맨, SEXY-교수, 몸망치기맨, 음담패설, 애무도사
늘어난팬티, 찌지진팬티, 빨간팬티, 변강쇠팬티
누드남자, NUDIE
난섹녀, SEXYGIRL!, ~샤론스톤, 비너스, 섹스우먼, 중2섹시걸~
야한여자, 팩스마담
쌍둥이아빠, 심심유부남, 유부녀, 샤론궁, 집나온아빠, 집나온엄마...



순결한 이화

금혼제도팀

결혼,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의 의미하는 결혼이란 무엇일까?
어쨌든 여성은 혼인여부에 따라 기혼녀/미혼녀로 사회 안에서
수없이 구분지워진다. 그리고 우리 이화안에서도

금혼학칙에 관한 이 연구를 통해 이 학칙이 가지는 의미를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했다. 그 방법으로는 설문지, 전화작업 외에 학내에서
이미 발표되었던 여러 자료들을 이용했다.

먼저 우리는 설문지를 통해 172명 이화인에게 금혼학칙에 관한 의견을 요구했다.

질문1. 당신의 입학연도는?

학 번	92	93	94	95	96
명 수	6	39	42	56	29
비율(%)	3.5	22.6	24.4	32.9	16.8

질문2. A. 학칙 제 28조(입학 금지)에 '결혼한 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응 답	입학전부터 알았다	입학후 알았다	모른다
명 수	126	45	1
비율(%)	73.3	26.2	0.5

B. 알고 있다면 그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답	모르겠다	전통이다	순결하게 보이기위해	학업에 지장	기 타
명 수	16	66	11	64	15
비율(%)	9.3	38.4	6.4	37.2	8.7

이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거의 금혼학칙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을 한 상태로 간주하였고 대부분
이 이 학칙을 전통('전부터 그래왔으므로..')으로 여겼으며, '결혼은 학업에 지장에 주므로 존재해
야 한다'로 생각하고 있었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대부분이 학교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
은 여자들만 있는 학교이므로 순결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와 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세번째(질문3)의 당신은 사실혼관계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72명 모두 아니라고 하였다.
다시(질문4), 주위의 사람들 중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반응은 다음과 같다.

응 답	없 다.	1명	2명
명 수	155	14	3
비율(%)	90	8	2

대다수의 응답이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실제 이화 내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별
로 없거나, 혹은 숨기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중에서 학칙에 따라 제적된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질문5)고 했을 때 10명만이 알고 있다
고 했다.

질문6. 만약 당신이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	졸업후로 결혼을 미룬다	사실혼관계 유지	학업포기	기타
명수	119	46	3	4
비율(%)	69.1	26.8	1.8	2.3

상당수가 졸업후로 결혼을 미루기를 원했는데 질문2에서 결혼이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포함되어있거나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다는 의견이라 추측했다. 기타 의견중 법적 투쟁을 하면서까지 결혼과 학업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외에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질문7. 학칙 제28조에 '결혼한 자'가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긍정	부정	무응답
명수	43	126	3
비율(%)	25	73	2

질문 6과 같은 상황이 생기다면 대부분 졸업후로 결혼을 미룬다고 한데 반해서 금혼학칙에 대해 부정적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아 학칙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칙에 대해 긍정적 하는 이유로는 그것은 전통(이화의 기존 이미지에 대한 생각이 내포되어 있으리라 보여진다)이며 결혼과 학업을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외에 소수 의견으로는 결혼보다는 사회활동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등이 있었다.

부정을 하는 큰 이유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이며 여성교육의 권리제한을 들었다. 그리고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며 결혼과 같은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질문8. 만약 당신 주위에 결혼한 학생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예	아니오	무응답
명수	83	84	5
비율(%)	48.3	48.8	2.9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서로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다음은 동창회원을 대상으로한 <전화작업>에 관한 내용이다.

거의 60년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금혼학칙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상과는 달리 학칙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전통으로서 존재해야 한다고하는 의견의 수와 비슷했다. 학칙에 대한 긍정은 외관상 별로 보기 좋지 않으며 결혼을 해서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순결성을 주장하며 이화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반대로 학칙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것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시대에 맞지 않으며 기혼녀와 미혼녀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의견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이 학칙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이화안에서 떠돌아 왔다. 또한 학보와 교지 그리고 작년 총학생회에서 열었던 모의 결혼식을 통해 외부에서도 이화의 금혼학칙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고 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무언가를 반항하고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철없는 아이들의 공연 짚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행사가 아닌 잘못을 발견하고 고쳐보고자 하는 상징이라고 하고 싶다.

이제 우리가 조사하고 토론한 내용을 중심으로 금혼학칙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과거에 기혼녀들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없는 우리의 사회(유교적인 가부장제사회)를 감안해 금혼이라는 학칙을 통해 재학중만이라도 여성들이 좀 더 자유롭게 공부하도록 해주었다. 또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경솔하게 결혼을 해서 피해(학업중단)를 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이화의 여성들은 '결혼 적령기'라는 단어로부터 비교적 제약을 덜 받으며 학업에 전념하거나 당당한 사회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 이화학당을 설립할 당시, 여성의 교육을 제약하는 현실이 금혼학칙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화를 거쳐간 여성들은 한국현대여성사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지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화의 금혼제도는 이화학당이 설립될 당시의 의미와는 큰 격차가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른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전자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후자는 능력이 외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더이상 여성이라고 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금하고 있다. 교육의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혼녀와 미혼녀를 나누어 입학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교육 기회의 축소인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금혼제도는 이화가 1세기가 넘게 지켜온 전통이 아니냐고?

전통이란 한 사회가 오랜세월을 거쳐 지켜온 사적인 규범의 영역이며, 시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가치로서 아름답게 지켜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여 더이상 절대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인습이며 폐기해야 옳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초창기의 금혼제도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결혼을 하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속에서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다면 현재 이화의 금혼제도는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유의미하겠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금혼제도는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의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야기하고, 제적 조건을 규정하여 입학 후 4년이라는 기간동안 혼인을 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처럼 금혼제도는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에 관한 권리,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이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만약에 금혼학칙을 폐지한다면 수많은 이화인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줄을 서게 될 것으로 간혹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화인들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대로 결혼을 위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마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화를 '신부 양성소'등으로 불리어질 때 분노하는 것이며 더이상 과거처럼 쉽게 학업을 포기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

아니 좀더 나아가보자. 이전에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학업을 포기했던 상황은 여성 자신의 의지가 박약했던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사회 내에서 여성이 갖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의 부담이 막대했던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더 크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삶이 속박하고 그 역할을 가정 내로 한정되어온 이 땅의 여성들은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왔다. 단지 여자는 결혼하면 '끝'인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연속적인 대사회적인 당당한 주체가 되고자 그러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운동들을 보자. 대표적인 것이 탁아소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 "북한의 어린이들은 탁아소에서 집단적으로 수용되어...아 불쌍해..어떻게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놓았지..?"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여성을 어머니의 삶으로만 협소화시키는 무서운 이데올로기였던가.

대사회적으로 여성이 기혼/미혼에 관계없이 사회에 진출하여 제 몫을 다 하고자 노력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얻게 되는 수많은 핸디캡들(그대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이 시점, 20세기 말 여성이 더이상 가정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힘겨운 전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이다.

이렇게 이 땅의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굴레를 넘어서면서 대사회적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즈음 우리 현실의 이화를 본다. 한국여성의 권익 신장과 깨우침을 향해, 즉 여성 교육의 선두주자로 노력해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되어지는 우리의 이화. 분명 과거에는 몇몇 선각자들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서 이화는 분명 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러한 특수한 몇

몇의 여성을 키우는 것이 이 땅 여성의 지위를 나아지게 하는 우리의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그 교육의 폭을 확장하면서 이 사회가 여성을 수많은 분할하면서 사적인(가정) 영역으로만 묶어두려고 하는 의식들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여성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조건에 맞는' 여성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그중 '이화의 이름을 가히 빛내줄만한' 몇명만 추스려 그녀만이 이화인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한국 여성의 현실과는 오히려 어긋난 채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여전히 못 벗어나면서 이화가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등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혼제도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것이 아니다. 이진 기혼녀/미혼녀를 나누는 구분에 대한 반대라는 '원칙'인 것이다.

진보적인 학문을 배우고 실천을 고민하는 곳. 그곳이 바로 대학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대학에서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진보적인 21세기를 바라보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이화대학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가 의문스럽다. 그 외에도 이 학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혼을 하고도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이화인이 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여성 보호차원에서라도 현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이화인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모두들 큰소리로 이화는 순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순결이란 무엇인가? 처녀성(?)을 가진 사람만이 순결하고 결혼한 여성은 순결하지 않단 말인가? 그리고, 처녀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화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이화가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이화는 순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육체적 순결이 아닌, 어떠한 불의와 부정도 발디딜 수 없는 진정한 진리가 살아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흔히들 이화를 '여성학의 메카'라고 하는데 여성운동이라는 것은 미혼여성들만이 다룰수 있는 문제인 것일까? 금혼학칙이 존속되건, 폐지되건 아니면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화인을 위한 진정한 의미로써 존재해야 할 것이다.



새 내기 송이양은 오늘따라 유난히 일찍 일어났다.
'뭘 입고 가야 하나?'

꼭두새벽부터 부산대는 송이양을 보고 어머니는 '아니, 제가 웬일이지'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셨지만 송이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고르고 화장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오 오늘은 송이양의 첫미팅 날이다. 친구들에게 어제 미팅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하고 담담한 체했지만 실제로 송이양의 가슴은 무척이나 설레었다. 항간에는 뭐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때 다 떴고 들어오는 것이 미팅이라고 들 하지만, 명문여대인 이화여대에 들어오기 위하여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만 했던 송이양으로서는 이것이 '첫경험'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었다.

정말이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가. 물론 겨우(!) 여대에 오려고 나의 사춘기 시절을 저당 잡혔었던가 생각하면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이제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사실 여대가 별로 나쁜 것 같지는 않다. 단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남자'가 없다는 것 뿐. 여중,여고를 나오고 심지어 여대까지 왔으니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그래도 뭔가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되는 기회)도 없을 터이니, 송이양은 미팅이라도 열심히 하자고 마음먹게 되었던 것이다. 혹시 거기에 나의 '연인'이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생각할 때 남자와 알아두어 나쁜 것은 없으니까...

"자, 그럼 쪽지에 맘에 드는 상대방을 차례로 세명만 적어 주세요"

여전히 어색하고 눈치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파트너를 고르는 시간이 되었다. 세칭 '수능팅'. 겨우 어린애 티를 벗은 것 같은 남자들 여섯과 어설픈 숙녀 흉내를 내고 온 아자들 여성의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음..제가 제일 잘 생겼긴 하지만 경쟁이 셀거야. 저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보이는군. 저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송이양은 고심 끝에 세명을 적어냈다. 주선자들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저쪽 테이블에서 쪽지들을 가지고 키득거리고 난리였다. 그리고 곧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웬말인가! 어제 꿈을 잘 꾸었는지 특차합격이 되고 만 것이다. '음..웬지 예감이 좋은걸...' 송이양은 호뭇함에 어쩔 줄 모르며 자리를 일어섰다. 그런데 갑자기 파트너가.

"저 송이씨, 우리끼리 놀면 재미없으니니까 저쪽과 합석을 하면 어떨까요?"

머뭇거리며 말하는 게 아닌가. 쳐다보니 혜정이네 커플이었다. 좀 기분나쁘긴 했지만 같이 놀아도 좋을 듯 싶어 혜정이네와 합석을 하기로 하고 자리를 옮겼는데..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노래방까지 가면서, 내내 송이양의 파트너는 어찌된 일인지 혜정에게서 눈을 땔 줄 모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혜정이가 이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송이양은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심이 상해졌다.

'흥, 그래 이쁘면 다냐. 정말이지 남자들은 다 똑같은'

'얼굴만 이쁘면 뭐해..마음이 착한게 제일이야 여자는. 왜 내 파트너는 나의 이 내면의 가치(?)를 몰라주는 걸까'

'하지만 나도 혜정이처럼 예뻐하면...'



집 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멍하니 밤하늘을 쳐다보며 송이양은 웬지 허탈하고 어딘가 아픈 기분이 들었다. 아침에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나왔던 사실이 조금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다. 여러가지 생각들이 머리 속에서 왔다갔다 했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내 참.. 오늘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네...'

김은정(법학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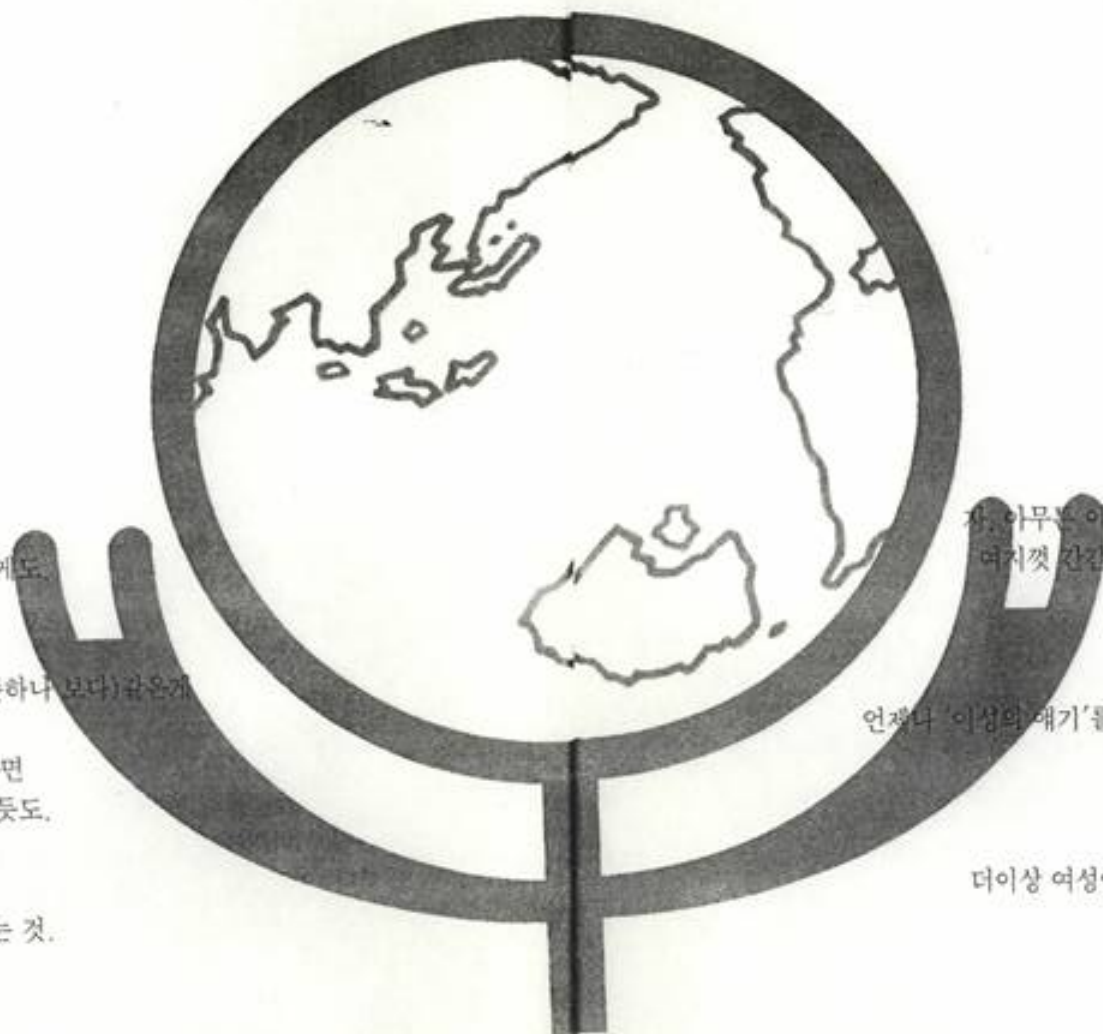
이화..
아무래도 이화하면
외부인이건 내부 이화인이건 무시하지 못할
아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
'여대'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의 산실...
심지어 '여성운동의 메카'라고 스스로 자신하는??!?

잠시 이번 교지의 앞면을 펼쳐볼까?
1885년 한국 최초의...
1955년 동양 유일의...
1982년 국내 여성 최초의...

이화의 뒤편길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강조'받은
수많은 여XX, 여YY들.....
우리 앞에 붙는 한글자, '女'
그래,
크게 생각하면 이 '女'라는 글자가 우리의 시작이다. 당연하게도.

혹자는 그렇게 묻는다.
"학교가 여대인데 왜 여학생회(다른 학교의 총학생회를 뜻하나 보다)같은게
따로 필요하지요?"
우리가 여자들끼리만 뽐뿌거리고 사는 아마존의 전사들이라면
굳이 여성위원회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의 단위가 필요 없을 듯도.

우리는 나름대로 이화라는 공간에서 소중한 경험을 한다.
이 사회 비주류의 성인 '여성'이 주도하는 공간에서 살아보는 것.



우리는 이런 배경으로
대학시절을 통해 나름대로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획득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학교당국의 권위적인 가부장적 모습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자)

하지만
이화에서의 경험이 어쨌든
이 사회에 있어서 '여성'이라고 성은 결국 굴레이다.
단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을뿐.
아니 어쩌면
'나는 다들까야'라는 아무진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경우로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도
'여성'의 이름으로 뭉치기엔
우리학교에 너무 여자들이 많은 이유도 있었겠지....

자, 아무튼 이제서야 [여성위원회]라는 이름을 이화공간에 세워보려고 한다.
여지껏 간간히 총학생회에 있던 여성국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커다란 단기적 목표는 우선 하나,
독자적인 위원회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학교의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처럼 독립적으로
언젠가 '이성의 대기'를 이화에서 가장 먼저 꺼내고 가장 먼저 뭉칠 수 있는 중심으로,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있는
[이화 여성위원회]를 그려본다.

더이상 여성이라는 이름이 우리들 앞에 굴레로서 작용하지 않는 그날까지...

여성단체를 소개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건모

두레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모든 불이익과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남녀공동참여, 남녀공동책임의 열아나가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현재 여연은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로 25개 여성운동단체의 연합체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런 활동을 합니다.

◆여성권의 관련 입법 제개정 활동

여성권의증진과 여성복지의 증진을 위해 새로 수립되어야 할 관련법의 제정 및 성차별적 법을 개정하는 활동, 그간 연대하여 벌여왔던 입법 제개정 활동: 가족법 개정(198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1989), 타아법 제정(1990), 성폭력특별법 제정(1992~3) 등

◆대안적 여성정책여론화 활동

일하는 여성들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고용관련 및 사회보장제도정책,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성보



호의 사회화 정책, 건강하고 평등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족정책, 세법정책, 가사노동의 사회적 평가정책, 가정폭력, 성폭력과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남녀평등한 주체확립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정책 등에 대한 대안 제시와 여론활동 등

◆과제별, 부문별, 지역별 여성운동 조직력 강화활동

여성노동자, 여성농민들의 생존권 지원 및 부문별, 지역별 여성운동 강화를 위해 부문위원회, 지역위원회 구조를 통해 과제별 공동대응과 여성노동시장의 중단기적 전망과 과제를 공유하는 정책토론회, 지도력 훈련 등.

◆여성정치참여 확대활동

여성유권자 정치의식 교육,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의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및 여론활동을 전개.

◆한반도 통일과 평화활동

◆3.8여성대회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85년 3월 8일에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3월 8일에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86년 3월 9일에 제12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

(행사내용: 매시기마다 제기되는 여성운동의 중심적 과제를 중점사업으로 선포하며 전시회, 토론회,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문화 행사마당을 마련)

◆기관지 [민주여성] 발행 및 각종 자료 발간

올해부터는 격월간 발행지 [뉴스레터]와 1년에 한번씩 나오는 [여성운동 정론지]로 발간할 예정.

◆국내 및 국제 연대활동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회의집(2층)
TEL. 273-9535
천리안,하이텔ID: KWAU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의 전화를 문을 연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개원 할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한국 사회,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부장제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나라에서 상담을 통해 얼마만큼이나 문제를 결할 수 있나, 여성계가 별일을 다한다...)는 투로 "여성의 전화" 앞날에 대해 비관적이었지만 지금까지 여성의전화는 확실하게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는 그 설립의 목적이 가정, 사회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상담기관입니다.

우리 여성의 전화 활동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상담의 30%가 넘는 구타 문제는 여성의 전화가 처음 제기하고 확고하게 전문적인 위치를 확보한 문제입니다. 상담의 대부분은 습관적이고 주기적인 구타에 시달리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내들의 호소에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인권부분으로, 87년



여성단체 연합이 결성되기까지 권인숙 성고문 사건, 조기정년제 철폐운동, 시청료 거부운동 등의 연대 활동을 벌여나갔고 86년에는 당시 가정내 성폭력 상담에서 직장내 성폭력까지 넓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성폭력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9년에는 사무직 여성운동에도 참여했고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성폭력 특별법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은 여성의 전화 중심으로 시작되어 이후 여성단체 연합,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계가 연합하여 3년여의 과정 끝에 93년 12월에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전국 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활동을 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이 법 제정운동을 통해 지금까지 내내 사회에 외쳐온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제기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하고 아이들과 노인까지 포함한 가정내 폭력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성의 전화는 회원단체로, 제정의 많은 부분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회원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는 것만이 여성의 전화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화여대 학우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도 이런 회원활동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아직 낯선 사람들이 많지만 자신이 가진 조금의 시간, 또는 약간의 후원금으로 우리의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자원봉사를 할 학생들이 많아져 우리 단체 뿐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많은 여성단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의전화: 269-2962/4

한국여성민우회



1987년에 창립된 한국여성민우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무직 여성들과 주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대중단체입니다.

한국 여성민우회에서는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의 평생평등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활동과, 주부들의 환경운동, 여성인권운동, 생활협동운동 등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민우회 노동센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활동 : 여성들의 주체적이고 활기찬 삶을 위한 여성간부교육, 여성학강좌, 주제별 특강이 있습니다.

◆상담활동 : 전화 또는 편지,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임금, 해고, 여직원회나 노동조합의 활동, 직장내 성희롱문제, 각종 부당한 대우 등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겪는 여러 문제를 상담합니다.

◆조사연구활동 : 신인사제도, 시간제, 임시직, 파견노동 등 여성노동관련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를 하여 여성노동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전활동 : 자료집 발간,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여성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여론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연대활동 : 여성단체, 노동조합 등과 다양한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간 [사무직 여성]발간 : 사무직 여성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심층분석,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전문잡지로, 다양한 정보지침과 함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주부와 직장여성 뿐만 아니라 여성문제를 느끼고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이 되시려면...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 269-5763-5)

민우회의 설립취지와 활동내용에 동의하시면 다음의 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 회원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총회에서 민우회 사업 전체에 대한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입비와 월회비를 냅니다.

일반회원 회원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총회에서 의결권이 일정수에 제한되고,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가입비와 연회비를 냅니다.

평생회원 일정액 이상 특별회비를 낸 회원으로, 정회원과 권리와 의무가 같습니다.

후원회원 회원활동은 참여하지 않지만 매월 후원금을 내주시는 회원입니다.

자료회원 월간 [함께가는 여성]과 계간 [사무직 여성]을 구독하는 회원입니다..



이 화와 사회의 건 강한 성문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건모는 '이화와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입니다.

이름이 꽤나 길죠? 처음 명칭을 정할 때 이화에서만 성문제를 고민할 수 없다. 사회에서의 불건전한 성문화가 더 심각하다. 알기만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실천'이란 단어를 넣자. 반드시 학부생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생, 졸업생도 참가할 수 있게 하자 등등의 치열한 토론 끝에 길지만 나름대로 모두를 만족시킬 이름이 탄생했죠.

이건모의 구성원은 이화인인 동시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지킴이와 나눔이들입니다. 지킴이는 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무엇을 지키느냐? 야간의 상담소를 철통같이 지킬뿐 아니라 48시간 이내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심리, 의료, 법적인 상담과 전문적 처치 센터를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눔이는 성폭력 상담소의 상근 간사님들을 도와 자료정리, fax보내기 등의 사무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모의 주활동은 이화인들과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성차별적 담론들에 대한 공개적 토론(화장실 소자보, 대자보),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성폭력 특별법, 잘못 알고 있는 성지식 검토, 성희롱, 성폭력 상황시 대처방법들을 알려내는 것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지킴이, 나눔이는 현재 4기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4일 부터 제 5기 지킴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화인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

1980년대 이후 몇몇 여성단체의 꾸준한 노력 아래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문제와 잘못된 통념, 사법절차상의 성차별 등이 지적되면서 그동안 은폐되던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1991년 4월에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돕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상담은 이제 9천8백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심리, 의료, 법률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대처와 극복방법으로 많은 여성의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1993년 12월에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피해직후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증거 채취실을 갖추고 피해가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의 위기상담에 한하여 24시간 상담하는 <위기센터>를 개설하였으며, 1994년 9월에는 근친성폭력 피해처럼 한 집에 기거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격리되어 심신을 회복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의 필요로 <열린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상담활동을 하면서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순결이데올로기와 성차별에서 비롯되고, 성폭력을 다루는 법사제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상담사례연구를 통한 연구작업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성폭력 문제의 현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하고자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그동안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 결국 94년 4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최초의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인 상담소는 그동안 펼쳐온 피해자들을 회복시키는

상담 활동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비디오 제작과 각종 자료발간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강과 원고기고, 성폭력 전문 상담원의 배출을 통한 교육활동, 소식지인 나문터를 제작하고 성폭력의 실상과 상담소를 알리는 홍보활동,

성폭력 실체 파악과 대안제시를 위한 조사연구활동은 각 지역에 있는 여성, 사회단체들이 지역 내의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91년 김부남 사건, 92년 김보은·김진관 사건, 윤금이사건, 93년에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등의 공대위를 통해 성폭력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성폭력 실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일깨우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문의전화: 576-7128

두레방

두레방은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 미군부대 옆, 조그만 시골동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6년에 문을 연 이후, 10년 동안 기지촌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과 일반인들에게 기지촌의 문제를 알려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온 민간단체로, 두레방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집단상담은 한 여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로서 많은 여성들이 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갑니다.

공동식사

매매춘이 주로 밤에 행해지기 때문에 제때 밥을 먹을 수 없는 여성들과 나이가 들어 생계가 막막해진 여성들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동식사시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집단상담이 이루어지거나 공동체놀이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교실

영어를 몰라서 미군에게 자



주 이용당하는 클럽여성들과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국제결혼한 여성들을 위하여 개설한 프로그램입니다.

두레방방

기지촌에는 50세가 넘어 보이는 매춘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지촌에서 나이가 들어버린 여성들로서 그 나이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에 자신이 없고 술과 불규칙한 생업을 위해 사회에 나갔다가 매춘여성이라는 냉대와 질시로 또다시 기지촌에 주저앉고 마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두레방방은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 개설한 프로그램인데 매춘을 그만두고 두레방방으로 전업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많으나 그것에 비해 현재 프로그램의 규모 및 판매량으로는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없

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두레방방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매춘을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두레방방과 같은 프로그램만 있다면 기지촌 여성들도 얼마든지 진일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레놀이방, 공부방

기지촌의 아이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기지촌의 저절비디오문화, 군사문화, 미국우월주의문화 등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지촌 활동

기지촌여성들과 대학생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지촌 여성들은 지금까지의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던 인간관계와는 다르게 대학생들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들을 맺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배울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문의전화: 0351)841-2609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은 1990년 11월 16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6개 여성단체가 모여 조직되었습니다. 발족 이후 지금까지 정대협은 ①일본군'위안부'제도와 같은 반인간적 범죄행위는 인류 역사에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②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회와 법적 책임, 배상을 우리의 운동으로 받아냄으로써 한일관계를 제대로 자리매김한다. ③일본군'위안부'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받아냄으로써 진정한 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만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7대요구안(표 참조)을 제시하며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대협의 활동의 성과로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전쟁범죄이며, 비인도적 범죄



죄이므로 일본정부는 사죄하고 국제법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들을 결의문에 채택하였으며, 특히 2월 6일에는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라디카 쿠마라스야미)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범죄가 국제법적으로 범죄 위반임을 인정할 것과 사죄하고 국가배상할 것, 범법자를 색출하여 처벌할 것 등을 권고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도 행동강령에 일본군'위안부'범죄자에 대한 책임자 처벌내용이 포함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열린 유엔의 회의 때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결의문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대협의 운동과 위와 같은

국제여론에 의해 일본정부도 조금씩 태도가 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91년 7월, 정신대실무대책반을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93년 5월에는 피해자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500만원과 매월 15만원씩(1995년에는 20만원, 1996년에는 25만원) 지급하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권을 부여한 것도 정대협 운동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대협의 운동으로 인해 국내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단순한 과거사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폭 해결해야 할 현재와 미래의 과제로 보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수요정기 시위에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40여 개 국내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복지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365-4016

별첨자료1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현재 쟁점!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공식사과,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국내, 국제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민간기금 방식)의 문제점.

이 방식의 내용적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일본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재정으로는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에게 직접 지불되는 어떠한 재정도 담당할 수 없다. 이 재정은 국민 모금으로 충당한다. 단 정부는 광고비 사무비 등을 담당하고, 현물로 지급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등 복지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둘째, 이 기금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을 위한 것이므로 일본 여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 기금에서 지원한다.

요컨대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참여하여 기획된 국민기금 방식은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 버린 것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아시아 피해국의 피해자는 운동단체들 모두가 계속하여 '범죄 행위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반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상주체와 배상 이유가 분명치 않은 어떠한 기금도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각국에 특히 가난한 피해국에 민간인을 중심으로 [대화사절단]을 파병하여 이 기금을 받아들이도록 선전하고 있습니다. 선전의 내용은 '이 기금으로 일본정부의 배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기금을 받고 국가 배상을 받도록 하자'인 것입니다. 돈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그리고 강제로 끌고 간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돈을 미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과제는?
현재 일본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철회시키고, UN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대협이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법적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일본 검찰에 고소하였을 때 국내법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ILO나 UN인권위의 권고대로 국민기금안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정대협의 특별법 제정 요구는 이미 일본 국회의원들, 그리고 일본 법조인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일본 여성단체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대협은 법률전문위원회와 함께 특별법안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한,일 법률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특별법이 성안될 수 있도록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정대협 7대요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현실

7 대 요 구	진 행 상 황
1.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의 전모를 공개하라!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그런 일 없었다며 부인 •있었다. 그러나 민간인이 한 일이다. •국가, 군 개입 인정 •일본정부 1차 진상조사 발표(92.7.6) : 강제성 부인 •일본정부 2차 조사발표(93.8.4) : 강제성 인정, 그러나 강제모집의 주체가 민간업자로, 군,관헌의 주도적 관여는 부인하는 등 부분적 강제성 인정 •위안부 총 숫자/정책입안자, 관리, 운영 등의 명령체계/위안소 생활상태, 패전 후 조치 등에 대한 자료 공개는 아직까지 하지 않음. ■민간연구자 활동 •위안부 제도에 일본군,국가의 주도적 관여,명령체계 조사
2.위안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	•위안부 제도 사실 인정 - 그러나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 추임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노동금지조약, 노예제금지조약 위반임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음.
3. 위안부 범죄 사실에 대해 사죄하라!	•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 방일시 일천황 "통석의 염" •92년 1월 8일 미와자와 수상 방한시 "반성과 사과의 뜻" •93년 11월 5일 호소카와 수상 방한시 "진사드린다" •95년 2월 현재, 연립여당의 국회의 부전결의안 조차 자민당 등이 반대 •국회결의 사죄와 개인에게 사죄 안하고 있음.
4.법적으로 배상하라!	•일본정부 입장 : 배상할 수 없다.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이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을 만들어 민간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지불하겠다.(약 100만엔 이하)
5. 위령비를 건립하라!	•진행되지 않음.
6. 역사교과서에 명기하여 가르쳐라!	•1994년부터 7개 교과서에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다루고 있음. 드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성, 성격 등은 없이 피상적으로 언급
7.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본검찰, 정대협과 피해자가 94년 2월 7일, 제출한 책임자 처벌 고소, 고발장을 접수조차 거부

“컴퓨터 世代, 그들의 선택!”

작은 선택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다!

SKC플로피디스크